

94. 6. 28

“예상밖 성황...우리만화 가능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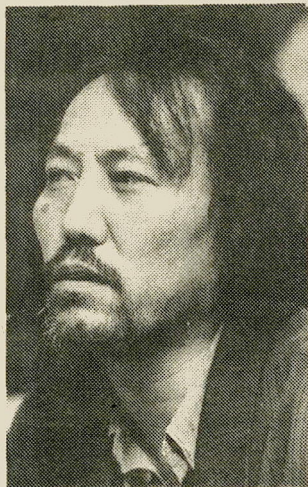
임범 기자

“예상보다 훨씬 성황입니다. 저 뿐 아니라 다른 만화가들도 이런 열기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22일부터 서울 종로구 관훈동 인덕교회랑에서 열리고 있는 '만화는 살아있다'전을 주최한 우리만화협회 회장 김형배(48·사진)씨는 “전시가 열리는 화랑 3층 바다가 무너질 것 같은 걱정에서 사로잡혀 있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9일까지 열 예정이던 전시가 7월5일까지 연장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전시는 50년대 만화에서 신세대 만화까지 우리 만화사 41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아침부터 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한 관람객들로 늘 packed 차있고, 만화특별활동반을 두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단체관람이 줄을 잇는다.

2층 한구석에서 김형배·이희재·박재동·김준범씨 등 9명의 만화가가 즉석에서 어린이들의



캐릭터를 그려주고, 단편 만화 영화 상영, 관람객용 낙서판등은 이 만화전의 독특한 특징이다.

“우리 만화를 사랑합니다.” “60년대말부터 70년대초까지 만화 보기에 정신이 없어 집에서는 본의 아니게 패륜아였지만 현재 사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너의 어머니 만화보다, 잡아라.” “199X년 일본 XX신문 조간 머릿기사-한국만화 일본

만화계 완전 장악.”

이런 낙서들은 “만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김씨는 자랑한다.

그는 이 전시를 다른 곳에도 유치하자는 제의가 들어오고, 출판사쪽에서 만화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젊은 만화가들과 연계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좋아한다.

“만화 대본소는 조만간 사라지게 되고 서점이나 문방구는 일본만화로 가득차버린 상황에서 우리 만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자는 전시 취지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듯합니다.”

70년대 초반 만화가 이종진씨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75년 <로봇 태권 비>로 데뷔한 뒤 230년 가까이 만화를 그렸던 김씨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가 흥행만을 노려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이나 일본만화풍의 그림을 요구할 때가 많다”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힘이 나질 않아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